

헬릭스미스, 신약개발 자회사 2곳 설립

“2024년까지 5개 신약 임상1상 진입”

2022년 상반기 첫 1상 매년 1~2개씩 추가 진입

임상 3상 본궤도에 오를 ‘엔젠시스’ 후속타 준비

개발 회사	종류	치료제	치료 질환
헬릭스미스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족부궤양, 무거력병 등
	항체치료제	VM507	신장질환
뉴로마이언	유전자치료제	NM301	루게릭병, 다발성경화증, 뒤센근이영양증 등
카텍셀	CAR-T세포 치료제	CX803	대상 질환 발굴 중
		CX804	난소암, 폐암, 횡경막 등
		CX805	대상 질환 발굴 중

“4년 내에 임상 1상에 진입한 신약 후보물 질(파이프라인)을 5개 확보하겠습니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사진)는 14일 “분사를 통해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 두 곳을 설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헬릭스미스는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특허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회사인 뉴로마이언, 카텍셀을 설립했다. 미국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DNA 유전자치료제인 엔젠시스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뉴로마이언은 신경근육 퇴행 질환, 카텍셀은 고형암을 대상으로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다. 뉴로마이언은 모회사인 헬릭스미스처럼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지만 치료물질이 되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르다. 헬릭스미스의 엔젠시스는 플라스미드로 불리는 DNA 분자에 특정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삽입해 약물을 전달한다. 반면 뉴

로마이언은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에 치료 유전자를 삽입해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게 된다.

뉴로마이언의 ‘NM301’은 HGF 단백질 발현을 유도하는 치료 유전자를 중추 신경에 주사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HGF 단백질은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하는 간세포성장인자다. 신경·근육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항염증 작용을 도와 퇴행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한다. 김 대표는 “NM301은 비임상 단계로 2022년 말 미국에서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카텍셀은 CAR-T 세포를 이용한 고형암 치료제 개발에 집중한다. CAR-T는 체내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 항원을 인식하는 CAR 유전자를 결합한 것이다. 카텍셀은 고형암을 표적하는 CAR-T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3개를 갖고 있다. 헬릭스미스 분사 내에 T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기반 세포주 생산시설도 구축 중이다. 김 대표는 “고형암을 표적하기 위해선 암 항원 선정, CAR 유전자 개발, 약물전달 기술 개발 모두에서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며 “CAR 유전자 제조 기술, CAR 유전자와 T세포 간 연결 기술, 약물 전달체인 레트로바이러스에 CAR-T를 삽입하는 기술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상반기 첫 임상 1상에 들어간 뒤 매년 1~2개씩 추가 임상에 진입하겠다는 게 김 대표의 구상이다.

이번 분사 결정엔 주력 파이프라인인 엔젠시스의 임상 3상이 본궤도에 올라왔다는 김 대표의 판단이 깔려 있다. 엔젠시스는 당뇨병 신경병증,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연말엔 엔젠시스로 임상 4개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신약 개발·생산, 상용화 기술, 품질 관리, 임상 규제 대응, 자금 확보 역량을 모두 갖춘 혁신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몇천원짜리 차량용 필터로 집안 공기 정화



‘아이와나테크’ 공기청정기

“온라인과 대형 할인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용 공기정화 필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몇천원이면 살 수 있는 차량용 필터로도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소형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아이와나테크의 김찬동 대표(사진)는 14일 “가성 비로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공기청정기 제품을 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와나테크가 만드는 ‘맘 공기청정기’는 전용필터는 물론 차량에 쓰이는 공기정화 필터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가로 26cm, 세로 24.5cm 크



3~4개월 사용 후 필터 교체 걸면에 필터 상태 확인 창

기로 자녀 공부방이나 침실, 원룸 등에 쓰기 적당하다. 가격은 10만원 밑으로 저렴한 편이다.

할인점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필터를 끼워 3~4개월 정도 사용한 뒤 교체하면 된다. 차량용 필터는

미세먼지를 90% 이상 걸러주는 PM2.5 이하 규격부터 99.95% 이상 제거하는 HEPA(HE)필터 13등급까지 다양한 제품이나 있었다.

김 대표는 “공기청정기 생산업체들이 만들어 파는 필터 가격이 3만~20만원대로 비싼 편”이라며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 차량용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맘 공기청정기는 걸면에 필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필터 창’이 있어 교체 주기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이와나테크는 이 같은 기능에 대해 이달 초 특허를 받았다.

김 대표는 대기업에 공기청정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2018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충격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창업에 나섰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친환경차 부품사 변신한 뉴인텍, 美 완성차 뚫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업체 뉴인텍이 수주 물량 증가로 공장 증설에 나선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3년간 급증할 수주량을 감당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뉴인텍은 최근 미국 완성차 업체와도 첫 계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친환경차 부품업체로 부상했다.



현대기아차에 커패시터 납품 전기차 수요 증가 맞춰 공장 증설 2023년 120만대 물량 수주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 분사를 둔 뉴인텍의 장기수 대표(사진)는 14일 “다급한 새로운 공장 1개 동 증설 공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신축 공장에는 친환경차 부품 커패시터 라인 4개가 추가된다. 완공되는 내년 2~3월에는 총 7개의 라인을 보유하게 된다.

일명 콘덴서로 알려진 커패시터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다. 커패시터는 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압을 안정화해 자동차의 모터 효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1968년 설립된 뉴인텍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커패시터를 생산해왔다. 미래 먹거리로 2004년부터 국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량용 커패시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친환경차를 개발하는 현대기아차동

차의 수요 증가에 맞춰 제품을 개발·공급해왔다. 현재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와 수소차에 들어가는 커패시터 물량의 100%, 하이브리드자동차용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뉴인텍이 공장 증설에 나선 것은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주 물량도 함께 늘고 있어서다.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중장기 생산계획에 따라 커패시

터 공급계약을 수년 전에 맺는다. 올해 뉴인텍이 생산할 물량은 약 40만 대 분량이다. 3년 뒤인 2023년에는 120만 대 이상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뉴인텍은 커패시터 3개 라인을 풀가동하며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3년 뒤 늘어날 수요를 감당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뉴인텍도 신규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출시되는 현대차 NE 모델과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에도 뉴인텍의 커패시터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차용 커패시터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35~40% 수준에서 2023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회사는 이 같은 수주 물량 증가에 따라 지난해 544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인텍은 해외로도 시장을 확장해 가고 있다. 미국 완성차 업체에 2022년부터 커패시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해외 업체와 맺은 첫 계약이다. 중국과 일본의 친환경차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아산=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에이비엘바이오·중 바이오社 코로나 치료제 공동개발 착수

내년 여름 상용화 목표

에이비엘바이오가 중국 바이오기업 하이파이바이오테라퓨틱스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내년 여름 상용화가 목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하이파이바이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ABL901(HFB30132A)’의 임상시험계

획(IND)을 지난달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임상 1상부터 개발에 합류한다.

ABL901은 코로나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세포 감염을 막는다. 이 약물은 일반적인 항체보다 체내에 남아 있는 시간이 길어 치료 효과가 더 우수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번 달 미국에서 임상 1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상 1상은 한 달간 진행된다. 임상 23상은 올해 안에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시작할 뒤 내년 4월 마치는 게 목표다. 내년 여름이면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포실험과 원숭이 동물실험 단계에서 낮은 투여량으로도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 돌연변이에도 효과를 보인 데다 고농도로 투여한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나오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보령제약, 고혈압 복합제 ‘투베로’ 멕시코 출시

보령제약이 고혈압 신약 카나브페밀리 중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투베로’를 멕시코에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투베로는 ‘아라코 프레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엔지오텐진 II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고혈압 치료제인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과 스타틴 계열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고정 용량 복합제다. ARB와 스타틴 복합제로는 멕시코에 처음 출시되는 제품으로서 시장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나브페밀리 중에서는 투베로가 네

번째다. 카나브(현지명 아라코)는 2014년, 카나브플러스디(아라코)는 2016년, 듀카브(아라코 듀오)는 지난해 멕시코에 출시됐다.

보령제약은 최근 한국과 멕시코에서 동시에 생중계한 투베로 웹심포지엄을 열었다. 멕시코 현지 파트너사인 스텐달의 이그나시오 콘데 의학책임자는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복합제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낮춘다는 다수 임상 결과가 있다”며 “아라코 프레라 환자와 의료진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중소 공용 화상회의실 1567곳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 1567곳을 연내 구축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수요기관을 선정해 화상회의 장비와 국산 소프트웨어(SW) 솔루션,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보험설계사 경력을 살려서
오늘부터 정규직 되세요.”

#불안했던 어제는 못바이 #입계최초 정규직 #경력지대 환영
#안정적 기본급 #4대보험 #택리후생 #인센티브 약속

EFA 채용설명회

일시 2020년 9월 17일 (목) 14:00~16:00

장소 세라톤 서울 필라스 강남 지하4층 다이내스티 홀

온라인 중계 YouTube '보험클리닉' 채널 라이브 중계

#피플라이프 정규직 EFA로 커리어 업그레이드!

직업의 안정, 소득의 안정, 고소득 실현의 꿈이 가능한 정규직 보험상담매니저를 공개 채용합니다.

[정규직] 보험상담매니저 공개 채용

모집분야	EFA 상담매니저
근무형태	정규직 (4대보험 적용, 기본급 + 인센티브)
승진기회	EFA - 수석 EFA - 사업단장 - 본부장 (임원)
소득구조	상담매니저 : 기본급 월 250만원 + 성과인센티브
활동지원	매월 08 20~40개 지급, 활동비 별도 지급

※보험업 유경력자 우대

EFA 피플라이프 를 검색하세요!

문의 02-2251-6862 / efa@peopliflife.co.kr

피플라이프